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 발표 뉴스클리핑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17.12.06>

□ 보도 결과(23개 매체, 총 25건 기사)

No	매 체 명	날짜	제 목	형태
1	매일경제	12월 5일	R&D장비산업에 2366억원 투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06553	지면/온라인
2	한국일보	12월 5일	'연구를 연구하는 산업'으로 일자리 1만여개 창출한다 http://www.hankookilbo.com/v/4e769888231e436abfc874cf07edf237	지면/온라인
3	머니투데이	12월 5일	'연구산업'에 2천억 투자…"5년간 일자리 1만2000개 만든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0415131280047&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지면/온라인
4	디지털타임스	12월 5일	정부, 5년간 `연구산업` 키워 고급 일자리 1만2000개 만든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120502109976788001&ref=naver	지면/온라인
5	디지털타임스	12월 5일	[사설] 정부 R&D 일자리, 질적 개선에 중점 둬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120602102351727001&ref=naver	지면/온라인
6	파이낸셜뉴스	12월 5일	R&D분야 일자리 1만2000개 만든다 http://www.fnnews.com/news/201712051729414826	지면/온라인
7	전자신문	12월 5일	정부, 연구산업 '선택과 집중'으로 키운다 http://www.etnews.com/20171205000283	지면/온라인
8	서울경제	12월 5일	"연구산업 육성…5년내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http://www.sedaily.com/NewsView/1OOQLMHJM2	지면/온라인
9	전자신문	12월 5일	정부, '연구산업' 육성 전략 마련…1만2000개 일자리 만든다 http://www.etnews.com/20171205000323	지면/온라인
10	대전일보	12월 5일	과기정통부, 외부 R&D 자원을 활용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87668	온라인
11	이데일리	12월 5일	'한국형 ARM 키우자'..정부, 연구산업 육성에 2366억 투입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479686616155568&mediaCodeNo=257&OutLnkChk=Y	온라인
12	연합뉴스	12월 5일	과기정통부 "연구산업 육성해 5년내 일자리 1만2천개 창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5/0200000000AKR20171205060100017.HTML?input=1195m	온라인
13	조선비즈	12월 5일	"연구개발 지원도 산업이다"…정부, 5년간 2366억원 투입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5/2017120501178.html	온라인
14	아주경제	12월 5일	정부, 69조 국가 R&D 개방형 혁신…2022년까지 1만2000개 일자리 창출 http://www.ajunews.com/view/20171205115440175	온라인

No	매 체 명	날짜	제 목	형태
15	아이뉴스24	12월 5일	연구산업 육성, 일자리 1만2천개 만든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64361&g_menu=020400&rrf=nv	온라인
16	헤럴드경제	12월 5일	정부 '연구산업'생태계 구축...과학기술일자리 1만2000개 창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05000413	온라인
17	MTN	12월 5일	R&D 연동사업 육성 추진... 고급 일자리 1만2천개 만든다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7120509423128957	온라인
18	이뉴스투데이	12월 5일	정부,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 나선다...5년간 2366억원 투입·일자리 1만2000개 창출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4692	온라인
19	뉴스1	12월 5일	"개방형 R&D로 국가 '연구산업' 키운다"...1만2000개 일자리 창출 http://news1.kr/articles/?3171295	온라인
20	이투데이	12월 5일	정부, '개방형 R&D산업' 생태계 구축 추진..."5년내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70816	온라인
21	뉴스핌	12월 5일	정부, 연구산업 일자리에 5년간 2366억 투입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205000149	온라인
22	세계일보	12월 5일	연구산업 고급 일자리 1만2000개 만든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1205004870	온라인
23	건설경제신문	12월 5일	연구장비개발,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R&D) 산업에 2366억 투자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7120515120571508 40	온라인
24	뉴시스	12월 5일	정부, 5년간 과학기술 일자리 1.2만개 창출..."연구산업 지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5_0001677713&cID=13001&pID=13000	온라인
25	신아일보	12월 5일	정부, '연구산업' 키워 과학기술일자리 1.2만개 창출 계획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717	온라인

<지면기사 스크랩>

한국일보

2017년 12월 06일
23면 (경제)

'연구를 연구하는 산업'으로 일자리 1만개 창출한다

과기정통부 혁신성장전략 발표
연구개발 활동 전반을 관리하고
결과물로 새 부가가치 창출 등
5년 동안 연구산업 집중 육성

외국과 달리 국내는 걸음마단계
2020년엔 시장규모 29조 기대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서 2000년 창업한 바이오톡스텍은 국내외 제약사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약의 비(非)임상시험을 대신 수행하는 주문연구기업이다. 국제적 수준의 비임상시험기준(GLP) 인증을 받았고, 신종플루백신과 골관절염치료제 등이 세상에 나오는 데 기여했다. 바이오톡스텍은 2010년 주문연구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6명으로 출발한 직원은 지난해 말 200명으로 불었고 연 매출은 222억원까지 성장했다.

주문연구처럼 연구개발(R&D)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이나 결과물에 연동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연구산업'이다. R&D 과정 전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연구관리와 첨단 연구장비 개발, 각종 시험·분석 서비스, 지식재산권(IP) 관리 등이 연구산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반도체 설계로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영국 암(ARM)이나 시험·검사로 6조9,000억원을 벌어들이는 스위스 SGS 등이 연구산업으로 성공한 대표적 기업들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연구산업 육성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2,366억원을 투입해 개방형 혁신을 이루며 1만2,000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이런 내용과 가칭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연구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정책이 수립된 것은 처음이다.

과기정통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은 ▲주문연구를 통한 R&D의 분업화·전문화 ▲연구관리 활성화 ▲연구개발 신서비스산업 발굴 및 육성 ▲연구장비 국산화 ▲제도적 기반 마련의 5대 전략과 그 아래 18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주문연구 분야에서는 바이오와 나노 등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연구관리 분야에선 R&D 전략과 IP 관리 서비스 등 10대 중점 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연구장비 국산화를 위해서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에 기반을 둔 기술창업, 연구자와 수요기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연구장비 국산화 스테이션'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 비용은 598억 달러로 세계 5위지만, 연구장비는 85% 정도가 외국 제품이다. 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국내 연구장비 기업 327개사 중 임직원 50명 미만 기업이 75%일 정도로 규모도 작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을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키우면 2020년쯤 국내 연구산업 시장 규모가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 숫자도 현재보다 1,200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연구산업은 국가 R&D가 고급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고, 우리 R&D 수준과 규모를 감안하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김창훈 기자

(29.9*12.5)cm

머니투데이

2017년 12월 06일
16면 (IT, 과학)

"과학기술 일자리 1.2만개 만든다"

과기부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 발표
R&D 연동사업에 5년간 2366억 투입
'고부가 첨단장비' 국산화도 본격 추진



정부가 연구산업을 키우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366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1만2000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2018~2022년)을 발표했다. 연구산업 지원정책을 수립한 것은 역대 과학기술 관련 부처 중 처음이다.

연구산업은 R&D(연구·개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연구 관련 서비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R&D 연동사업을 말한다.

영국 반도체설계회사 ARM이 연구산업의 대표 기업이다. ARM은 반도체 제조공장 없이 설계만 전문으로 수행하는 주문연구 산업분야 업체다.

ARM이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를 설계하면 ARM으로부터 라이선스를 구매한 퀄컴·애플·삼성 등이 이를 응용해 각기 다른 성능과 특성을 지닌 칩을 생산한다.

정부가 마련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바이오, 나노·소재 등 분업화가 비교적 쉬운 분야를 대상으로 주문연구산업 유망기술을 발굴, 성공사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문연구기업,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분업화 유망과제 발굴 협의체'를 운영, 연구분야별 특성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위탁·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업과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주문연구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연구기업을 서로 연결하는 종합정보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R&D전략 컨설팅, 연구과제관리 컨설팅, IP(지식재산권) 관리서비스 등 10대 중점 연구관리 서비스를 도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R&D 중 대형·융합형 R&D사업을 대상으로 아웃소싱을 추진, 공공연구관리시장을 창출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서비스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산업화하는 미래 연구산업 창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고부가가치 첨단 연구장비의 국산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바이오·의료·나노기술 R&D분야에 활용성이 큰 '보급형 투자전자현미경' '3차원 분자영상질량분석기' 등 경제효과가 높은 핵심장비는 국산화하고 국산장비의 신뢰성 평가체계를 구축, 85%에 달하는 외산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장비개발업체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구자와 수요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일종의 클러스터처럼 지정하는 '연구장비 국산화 스테이션'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연구산업 관련 기업 1200개사, 시장규모 29조원, 일자리 1만2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연구산업은 국가 R&D가 고급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며 우리나라 R&D 규모를 감안하면 혁신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자체조사한 국내 연구산업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문연구기업은 681개사로 50명 미만 기업이 85%, 연구관리기업은 450개사로 10명 미만 기업이 76%, 연구장비기업은 327개사로 50명 미만 기업이 75%를 차지했다.

류준영 기자 joon@

(20.3*17.8)cm

디지털타임스
2017년 12월 06일
03면 (종합)

정부, 5년간 '연구산업' 키워 고급 일자리 1만2000개 만든다

과기정통부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

R&D 비용 65조 '세계 5위' 반면
연구장비 85%는 외산제품 차지
상위 20대 기업 중 토종기업 '0'

생태계조성에 2366억 예산 투입
29조 시장조성·1200개 기업 육성
세계 선도형 국산장비 개발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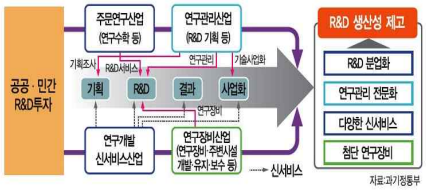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활동을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연구산업'을 키워 고급 일자리 1만2000개 창출에 나선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에 5년 간 23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산업이란 R&D 과제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하는 '주문연구' 산업과 연구기획·대형프로젝트 등 R&D 과정을 관리하는 '연구관리' 산업, 첨단 연구장비 등을 개발·공급하는 '연구장비' 산업 등을 포괄하는 산업군이다.

이미 해외에선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1조원 이상의 연 매출을 달성한 영국의 ARM이나 시험·검사만으로 연간 6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스위스 SGS 같은 전문기업들이 배출되고 있다.

연구산업 생태계



자료:과기정통부

반면 국내 연구산업은 아직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약 65조원(598억달러)에 달해 세계 5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연구장비 시장의 85%는 외산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연구장비를 공급하는 상위 20대 기업 중 국내 기업은 단 한 곳도 없고, 국산 연구장비 기업 327곳 중 75%는 직원 수 50명 미만의 소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체계적인 육성책이 없었던 연구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적 기반인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주문연구를 통한 R&D 분업화·전문화 ▲연구관리 활성화 ▲연구개발 신서비스산업 발굴 및 육성 ▲연구장비 국산화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 등 5대 전략 18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29조원 규모의 시장을 조성하고 1200개 기업을 키워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드는 게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바이오, 나노·소재 등 주문연구에 적합한 분야를 중심으로 R&D 분업화·전문화를 추진해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연구관리 산업화를 위한 10대 중점 서비스를 도출해 기업의 서비스별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연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R&D 서비스 산업 발굴과 '무냉매 고온 초전도자석 핵자기 공명장치' 등 세계 선도형 국산 장비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산업은 개방형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주요 산업으로 R&D 활동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중소기업이 혁신성장 주체로 자생해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33.0×19.1)cm

디지털타임스
2017년 12월 06일
23면 (오피니언)

| 사설 |

정부 R&D 일자리, 질적 개선에 중점 둬야

정부가 앞으로 5년간 2400억원을 투입해 연구산업 일자리 1만 2000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연구산업이란 연구개발(R&D)이 진행되는 과정의 전후에서 R&D 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와 연구장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한국은 지난해 기준 총 R&D 비용이 65조원 규모로 세계 5위 R&D 투자국"이라고 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는 연구산업이 활성화돼 관련 전문기업의 연간 매출이 조단위를 넘어서지만 우리 현실은 반대다. 우리 정부가 이제라도 국내 연구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고 연구 부대 활동은 외부 전문기업의 수준 높은 지원이 가능한 생태계를 마련해 R&D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은 모두 바라는 바다.

사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연구자가 모든 연구관리를 직접 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대전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연구자들이 본연의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운 풍토다. 조금만 연차가 차면 관리직에 올라 프로젝트를 따내야 한다. 결국 순수 연구보다는 행정이나 영업에 매달려야 하고, 이를 통해 연봉이 추가적으로 보존된다. 이에 출연연 연구자들도 대학교수직을 쫓아 연구기관을 떠나가는 것이 부러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에 정부가 선택한 방식이 R&D 전략 컨설팅과 연구과제 컨설팅 등 연구관리 서비스를 전문기업으로 아웃소싱하는 환경 구축이다. "전문기업에 연구 이외의 부가적인 일은 아웃소싱 해 개방형 생태계를 만든다면 R&D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발주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컨설팅과 실제 업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양성된 전문인력이 업무를 맡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R&D 관련 일자리 수요는 확대될 것이다. 일례로 빅데이터 과학자나 바이오 인력을 비롯한 각 분야의 연구인력은 헤드헌팅 업계에서도 품귀다. 지식융합 활용능력을 보유한 R&D 인력이 필요한 기업이 늘고 있다. 또 유망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R&D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연구산업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정부 방침은 희망을 준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R&D과제 선정시 R&D인력에 대한 고용평가 비중 확대나 신규 R&D인력 채용시 기술료 감면 등 당근책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고급인력이 원하는 일자리는 일하는 환경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질 때 만들어진다. R&D 일자리가 최첨단 전문직으로 최고 대우가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사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공계 전반에 확산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만 과학기술기반 고급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부가가치 첨단 연구장비를 만들고, 연구성과를 낼 수 있다.

(11.2*24.6)cm

- 전자신문

'연구산업' R&D 전주기 측면 지원 2022년 일자리 1만2000개 만든다

과기정통부, 5년간 2366억 투입 주문연구업·연구관리업 등 포함 빅데이터 기반 '신서비스업' 등장도

정부가 공공·민간 연구개발(R&D) 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연구산업'을 키워 2022년까지 1만2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연구산업은 R&D 일부를 대행하고 전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연구장비 개발·제조업도 포함된다. 고용 창출, R&D 성과 제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22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5일 발표했다. 연구산업 혁신을 위한 5대 전략 18개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통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연구산업은 R&D 전주기를 측면 지원한다. 연구 주체 수요에 맞춰 일부 R&D 과제를 위탁·공동 수행하는 '주문연구업', 연구 기획 보조·대형프로젝트 관리 대행 등을 수행하는 '연구관리업', 연구활동에 필요한 고급 장비를 개발·공급하는 '연구장비업'도 포함된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R&D 경쟁력을 높여주는 'R&D 신서비스업'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 진흥에 5년 간 2366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 발의할 계획이다. 연구산업 통계를 별도로 분류한다. 다양한 형태 R&D 파생산업을 한 데 묶어 종합 지원한다는 목표다.

주문연구업 육성을 위해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한다. 분업화 체계가 갖춰진 바이오, 나노·소재 산업에 주목했다. 주문연구기업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참여하는 역매칭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연구관리업 분야에선 R&D 전략 컨설팅, 연구과제 관리 컨설팅, 지식재산(IP) 관리 서비스 등 10대 중점 서비스를 우선 도출한다. 정부 R&D 사업의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공공시장을 창출한다.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연구관리 전문기업을 참여시켜 해외 진출을 돕는다.

우리나라 연구산업 취약점으로 지적받는 연구장비 분야에선 우수 공공 기술을 활용한다. 출연연이 개발하고 있는 장비 기술을 기업에 이전, 20개 기업의 창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연구 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성장 잠재력에 비해 국내 산업이 영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민간을 합한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598억 달러(약 65조원)다. 세계 5위 규모 R&D 시장이다. R&D 연동 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여건이다.

급성장한 R&D 시장을 파생·연동 산업 창출로 잇지 못했다. 올해 기준 주문연구기업 681개 중 50명 미만 기업이 85%다. 연구관리기업 450개 중 76%가 10명 미만 규모다. 2014년 기준 국내 연구장비 시장 85%를 외산이 차지한다. 상위 20개 제작사 중 국내 기업이 하나도 없다.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영국 ARM이 연간 1조3000억원 매출을 올리고 스위스 시험·검사 전문 기업 SGS가 6조9000억원을 벌어들이는 것에 비하면 산업이 영세하다. 우리도 R&D 주변 산업의 부가 가치를 높여야 할 때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R&D 성과 제고를 위해서도 '개방형 혁신'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기술 수명과 주기가 단축되고 복잡성도 높아졌다. 모든 기술을 내부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전문 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게 유리하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연구산업은 국가 R&D가 고급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고, 우리나라 R&D 규모를 감안하면 성장 잠재력도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뉴스 줌인 연구산업 '선택과 집중' 국정 목표로

주문연구기업 R&D 수주 밀어준다



송준영 songjy@
산업정책부 기자

바이오·나노·소재 유망분야 선정 中企 'R&D 바우처' 사용 지원

정부 사업관리도 민간에 개방 연구장비산업 공공 기술 창업 지원

정부는 연구 대행, 연구과제 위탁관리, 연구장비 제조 등 연구개발(R&D) 파생 산업을 '어두운 등잔 밑'으로 파악했다. 우리나라 R&D 규모가 세계 5위로 급성장했지만 온기를 민간으로까지 전파하지 못했다. 과학기술 성과를 현 정부 최우선 국정 목표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려면 '연구산업'부터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유망 분야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는 것을 1단계 전략으로 삼았다. 2022년까지 1200개 기업을 육성해 1만20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특정 단계의 R&D 과제를 대행하는 주문연구업은 바이오, 나노·소재 분야에서 싹이 트고 있다. 바이오와 신약 개발은 후보 물질 발굴, 제품 개발, 비임상 시험, 임상 시험, 인증 획득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만큼 분업화가 쉽다.

국내 기업 바이오톡스텍(대표 강종구)은 2000년 종업원 6명으로 창업했지만 지난해 종업원 200명이 매출 222억원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외 제약 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비임상시험을 국제 수준에 맞춰 대행, 인증한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은 "주문연구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를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바이오, 나노 등 주문연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주문연구기업이 더 많은 R&D 과제를 수주하도록 돕는 게 골자다. 주문연구 유망 분야에서는 주문연구기업과 대학, 출연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분야 특성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위탁·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중소기업이 지원받는 R&D 바우처를 주문연구에도 쓸 수 있게 한다. R&D 바우처는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R&D 쿠폰'으로, 그동안 대학·출연연에 R&D를 의뢰할 때만 쓸 수 있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주문연구업체에 R&D를 맡길 때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 R&D 사업 관리를 민간에 개방한다. R&D 전략 컨설팅, 과제 관리 컨설팅, 지식재산(IP) 관리 등을 전문기업에 외주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연구관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과제 관리를 전문기관이 대행하면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출연연 간 융합연구 사업인 화학공정융합연구단(CCP연구단) 사업 관리를 성공 사례로 들었다. CCP연구단은 연구 전략 수립, 연구 과정, 성과 관리 전반에 전문기업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를 활용했다. 회사는 기존 연구 분야가 상이한 기관 사이에서 목표·계획 수립, 진도 관리, 문제 이슈 진단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연구장비 산업은 국가 도움이 절실하다. 연구산업 분류 중 시장 규모가 가장 크지만 국내 기업 경쟁력이 가장 취약하다. 고도의 정밀성과 기술력이 요구돼 '소비자'인 현장 연구자가 검증된 외산 장비를 선호한다. 상위 20개 제작사 중 국내 기업이 한 곳도 없다.

정부는 공공 기술 창업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출연연이 개발하고 있는 연구장비 중 10개 선도 기술을 선정했다. 2019~2025년 개발이 완료되는 이들 장비는 세계 최초 제품이거나 기존 기능을 크게 개선한 제품이다. 국산 연구장비는 성능 평가를 체계화해 신뢰도를 높인다. 국내 공공 조달 시장, 해외 ODA 사업으로 국산 연구장비 판로를 개척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장비는 오랜 기간 시장 질서가 굳어진 만큼 기존 장비를 국산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는 장비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장비를 국내 기업이 개발, 세계 시장을 선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017년 12월 06일
20면 (IT,과학)

R&D장비산업에 2366억원 투자

과기정통부, 연구산업성장전략

정부가 연구 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총 2366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연구 산업이란 연구개발(R&D)이 진행되는 과정의 전후좌우에서 R&D 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연구 관련 서비스와 연구 장비 등 제품을 포괄하는 R&D 연동 산업을 말한다. 수요에 맞게 연구와 개발 자체를 위탁·공동 연구 형태로 제공하는 주문 연구 산업, 연구 기획 대형 프로젝트 관리 등 R&D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연구 관리 산업, 연구 활동에 필요한 고급 연구 장비 등을 개발·공급하는 연구 장비 산업 등이 포함된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연구 산업 기업인) 영국 ARM은 반도체 설계만 수행해 2014년 연매출 1조3000억원을 달성했고, 스위스 SGS는 시험·검사만으로 연간 6조9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 산업의 국내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문 연구 신고기업은 2017년 현재 681개로 50명 미만 기업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 관리 신고기업은 450개로 10명 미만 기업이 76%에 달한다. 특히 국내 연구 장비 시장의 85%를 수입하고 있으며, 정부 R&D 구축액 상위 20개 제작사 중 국내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원호섭 기자

(11.7*9.0)cm

서울경제
2017년 12월 06일
14면 (IT,과학)

"연구산업 육성…5년내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과기정통부 혁신성장전략 발표
내년부터 2,366억 투입하기로

정부가 첨단연구장비 개발, 시험·분석 서비스, 지식재산권(IP) 관리 등 연구개발(R&D)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연구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2,366억원을 투입해 신규 일자리 1만2,000개를 창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5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바이오, 나노 등을 중심으로 연구산업 기업이 기술을 발굴해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원에 제안하는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R&D 포털인 '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를 확대 개방하고 외부 개발자에게 오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제공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 R&D 사업을 통해 연구산업 시장을 창출하고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미래 연구산업 창출 시범 프로젝트'를 펴고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에도 나선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17.6*6.6)cm

파이낸셜 뉴스
2017년 12월 06일
05면 (종합)

R&D분야 일자리 1만2000개 만든다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 발표
5년간 2366억원 예산 투입
바이오·나노·소재 분야 선정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초점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향후 5년간 2366억원의 예산을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에 투입, 1만2000개의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연구산업이란 연구개발(R&D)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R&D 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와 연구장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해외에선 연구산업이 활성화돼 관련 전문기업의 연간 매출이 조단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 연구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일 이같은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진규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한국은 지난해 기준 총 R&D 비용이 65조원 규모로 세계 5위의 R&D 투자국"이라며 "R&D의 생산성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고 연구부대활동은 외부 전문기업의 수준높은 지원이 가능한 생태계를 마련해 R&D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수요에 맞는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연구를 활성화시켜 R&D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나노·소재 등을 유망 분야로 선정해 기술을 발굴하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ARM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영국 ARM사는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의 95%가 ARM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탑재하고 있다.

R&D 전략 컨설팅과 연구과제 컨설팅 등 연구관리 서비스를 전문기업으로 아웃소싱하는 환경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서비스별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서비스 인력을 양성해 서비스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그동안 연구자가 모든 연구관리를 직접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전문기업에 아웃소싱해 개방형 생태계를 만든다면 R&D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R&D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민관협의체에선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고부가가치 첨단 연구장비의 국산화와 해외 수출도 추진할 방침이다. 2014년 기준 국내 연구장비 시장의 85%를 외국산이 점령하고 있으며 정부 R&D 구축액 상위 20개 제작사 중 국내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 생태계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연구산업 통계기반을 만들기 위해 연구산업 통계 특수분류화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차관은 "연구산업은 국가 R&D가 고급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중소기업이 혁신성장 주체로 자생해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15.3*19.7)cm